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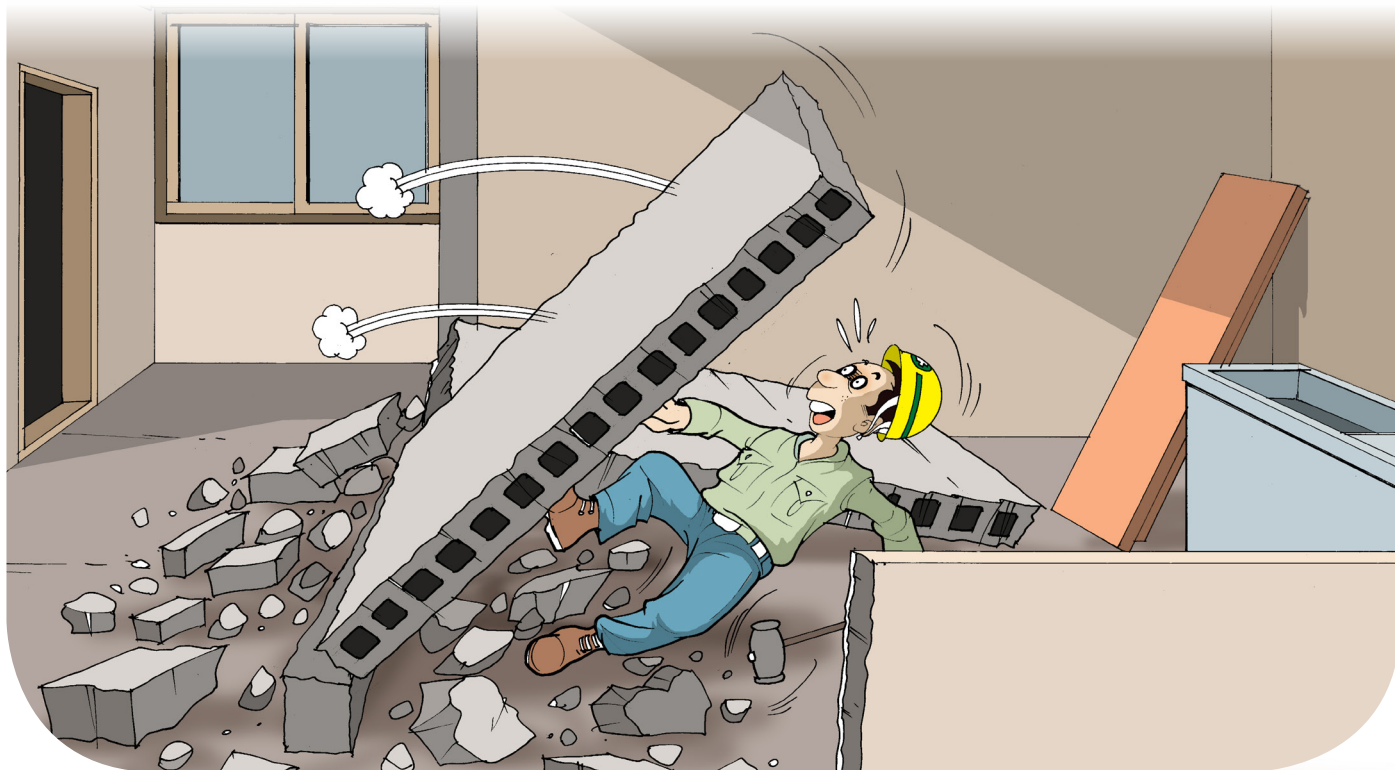
재해사례

(조적벽체)

조적벽 해체작업 중 벽체에 깔림



단독주택 인테리어 현장에서 주방과 욕실사이의 조적벽(폭 0.8m×높이 1.3m, 두께 17cm)을 전동 해머드릴과 해머를 사용하여 해체하던 중 벽체가 쓰러지며 작업자가 깔림



! 재해발생 원인

- 해체 중인 벽체의 넘어짐 방지를 위한 지지대 등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 실시
- 작업순서, 방법 등 대책수립을 위한 해체작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작업 실시

+ 안전작업 방법

TIP

- 1 해체 전에 조적벽체의 구조 및 시공 상태를 조사하여 해체 작업시 벽체의 넘어짐 및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 실시
- 2 해체 중인 벽체가 넘어질 것에 대비하여 견고한 지지대 등을 설치하여 벽체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하고 작업 실시





조적벽 해체작업 중 벽체에 깔림 해체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세요!

이번 사고는 건물 해체
작업 중 1명이 해체
벽체에 깔려 사망한
재해입니다.



벽체만 부수면
되나요?

벽체를 해체하기 전에
천장들과 문을 먼저
떨어내세요!



그 다음에 벽체를
해체하면 됩니다.

예 알았습니다.



벽체 해체하다 넘어지지
않을까요?

그러니 벽체 전체를 해체하지
말고 아래쪽에 구멍을 뚫고
해머로 쳐서 넘어뜨려요.



아 그러면 될 것
같네요. 작업 시작
할 테니 나가세요!

급하긴~
조심해서 해요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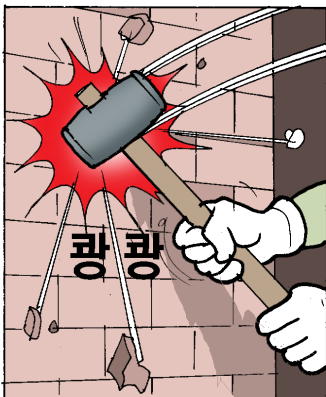
먼저 천정들과
문들을 떨어
내자구!



자 그럼 이제부터 벽체를
해체 해 볼까?



자 이제 하부를 뚫었으니
해머로 때려 반대편으로
넘기면 끝~



건물을 해체할 때에는
사전 조사하여 해체
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
이에 따라 안전하게
작업을 실시하여야
합니다.
또한, 진동 또는
충격으로 쓰러질 위험이
있는 벽체는 지지대 등을
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
참고법령 및 기준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,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

